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한국 취업 및 귀국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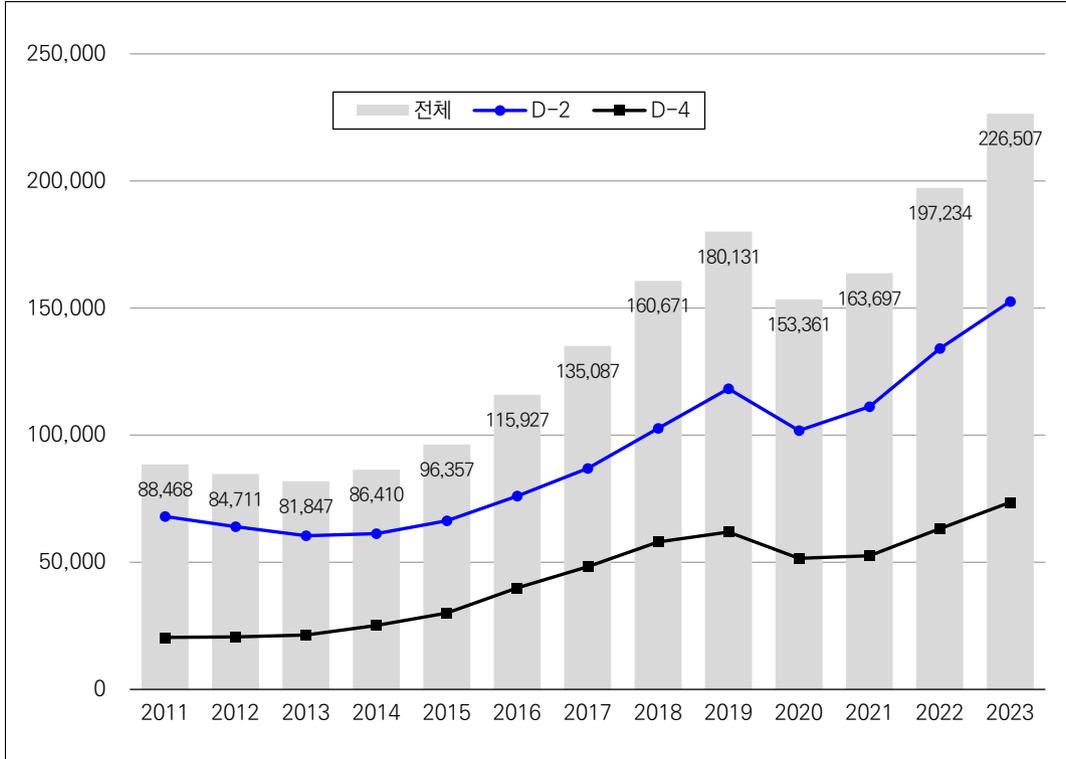
-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그림 1 참조).
 - 2023년 유학비자(D-2) 자격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은 152,094명, 일반연수(D-4)는 74,361명으로 현재 총 226,507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음.¹⁾
 -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약이 있었던 2020년을 제외하면(14.9% 감소)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은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 증가하였음.
- 본고는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²⁾의 유학생 부가 조사표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결심, 한국 취업, 본국 귀국 계획, 졸업 후 한국 취업 및 귀국 계획 등을 살펴봄.
 - 조사 대상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명부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조사 기준 시점 당시 한국에 91일 이상 계속 체류 또는 체류 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함(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 만 15세 미만의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는 제외).
 - 유학생 부가조사(5월)는 2017년, 2020년과 2023년 총 세 번에 걸쳐 시행되었고, 12월에 공표됨. 2017년 부가조사표 항목의 경우 21개 부문, 2020년은 16개의 부문, 2023년은 19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 공부하고 있는 주 전공, 졸업 후 계획 등이 조사됨.

1) 외국인 유학생들은 체류자격 비자 조건이 유학비자(D-2)와 일반연수(D-4)로 크게 나누어져 있음. 유학비자(D-2)에는 총 9가지 비자 종류가 있으며, 전문학사(D-2-1), 학사유학(D-2-2), 석사유학(D-2-3), 박사유학(D-2-4), 연구유학(D-2-5), 교환학생(D-2-6), 일-학습연계 유학(D-2-7), 단기유학(D-2-8), 교환학생(D-2-F)으로 나누어짐. 일반연수(D-4)는 두 가지로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외국어 연수(D-4-7)가 있음.

2)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2017년(표본 1만 명), 2020년(표본 1만 5천 명)과 2023년(표본 2만 5천 명) 실시됨.

[그림 1] 2011~2023년 외국인 유학생 현황

(단위: 명)



주: 표시된 수치는 외국인 유학생 전체 인원수.
 자료: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통계」 원자료, 각 연도.

○ 2023년 외국인 유학생은 여성(54.1%)이 남성(45.9%)보다 많음. 구성 측면에서는 몽골 외국인 유학생(+0.4%포인트) 비중이 증가하였고, 전공 측면에서는 교육 및 예술, 인문학 전공자(+3.7%포인트)가 증가하였음.

－ 전공 계열을 보면 사회과학(28.8%), 한국학(20.6%), 교육·예술 인문학(17.2%), 어학연수(14.9%) 순으로 비중이 높고, 일반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전공 계열에서 규모가 증가하였음.

〈표 1〉 외국인 유학생 규모 및 비중 추이

(단위 : 명, %, %p)

		2017	2020	2023	증감
전체	유학생 전체	98,602	136,995	187,856	50,861
	남	44,072 (44.7)	67,936 (49.6)	86,237 (45.9)	18,301 (-3.7)
	여	54,530 (55.3)	69,059 (50.4)	101,619 (54.1)	32,560 (3.7)
출신국가	중국(한국계 제외)	5,963 (6.0)	38,513 (28.1)	51,452 (27.4)	12,939(-0.7)
	베트남	47,775 (48.5)	54,587 (39.8)	72,142 (38.4)	17,555(-1.4)
	우즈베키스탄	17,814 (18.1)	9,195 (6.7)	11,480 (6.1)	2,285(-0.6)
	몽골	26,990 (27.4)	7,874 (5.7)	11,423 (6.1)	3,549(0.4)
	기타	-	26,826 (19.6)	41,359 (22.0)	14,533 (2.4)
전공계열	한국학	9,597 (9.7)	28,190 (20.6)	38,610 (20.6)	10,420 (0.0)
	교육, 예술 및 인문학	16,750 (17.0)	18,498 (13.5)	32,315 (17.2)	13,817 (3.7)
	사회과학, 언론, 정보학, 경영, 행정 및 법 (한국학 이외 사회과학)	30,365 (30.8)	41,980 (30.6)	54,079 (28.8)	12,099(-1.8)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자연과학)	8,112 (8.2)	5,247 (3.8)	5,777 (3.1)	530(-0.7)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및 건설(공학)	14,813 (15.0)	17,880 (13.1)	21,984 (11.7)	4,104(-1.4)
	농림어업 및 수의학	983 (1.0)	794 (0.6)	1,295 (0.7)	501 (0.1)
	보건 및 복지(의학 및 약학)	1,728 (1.8)	1,388 (1.0)	2,866 (1.5)	1,478 (0.5)
	일반프로그램, 자격 및 서비스(기타)	-	9,010 (6.6)	4,821 (2.6)	-4,189(-4.0)
어학연수	16,255 (16.5)	14,009 (10.2)	27,909 (14.9)	13,900 (4.7)	

주 : 1) () 안은 각 연도 외국인 유학생 전체 중 성별, 출신국가, 전공 계열 각 해당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2)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발표한 고등교육통계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차이가 있음. 고등교육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2017년 학위·비학위 모두 합쳐 123,858명, 2020년은 153,696명, 2023년은 181,842명임.

3)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유학생부가조사)」에서 출신국가는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로만 분류되어 있으며, 세부 출신 국가 정보는 기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4)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국가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인 사유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된 한류의 영향과 지리적 접근성, 저렴한 유학 비용 등의 주요 원인임.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유학생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한국에서 유학하기로 결심한 사유는 ‘교육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해서(20.7%)’, ‘전공과정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16.9%)’, ‘한국 학위가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11.5%)’ 순이고, ‘교육 과정 및 장학금 관련’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2023년에 ‘교육 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해서’와 ‘장학금 혜택이 있어서’라는 이유가 각각 2020년 대비 5.1%포인트, 0.5%포인트 증가하였음.

〈표 2〉 외국인 유학생 한국유학 결심 사유별 비중 추이

(단위 : %, %p)

한국유학 결심 이유	2017	2020	2023	증감
교육 과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13.0	15.6	20.7	5.1
한국에서의 전공과정이 내 관심 분야와 잘 맞아서	17.6	17.3	16.9	-0.4
공부하려는 분야가 한국과 관련된 것이어서	9.9	8.7	7.9	-0.8
한국 학위가 본국 또는 외국에서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2.0	12.5	11.5	-1.0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입학 허가를 받기 쉬워서	3.9	3.2	3.3	0.1
다른 나라에 비해 유학비용이 적게 들어서	6.6	5.8	5.7	-0.1
장학금 혜택이 있어서	8.2	8.0	8.5	0.5
가족, 친인척, 친구, 교수 등의 권유로	8.7	9.1	7.3	-1.8
주위에 한국에서 유학한 친구, 동료 등이 있어서	5.4	5.5	4.8	-0.7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한국이 친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2.4	2.2	2.0	-0.2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 때문에	10.3	10.3	9.6	-0.7
한국에 가족, 친척, 친구 등이 살고 있어서	1.5	1.5	1.5	0.0
기타	0.3	0.4	0.4	0.0

주 : 설문 응답은 순위형 다중응답으로 3순위까지 이루어져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1순위 : 응답 * 3, 2순위 : 응답 * 2, 3순위 : 응답 * 1).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유학생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표 3〉에 따르면, 2023년 다니고 있는 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118,369명으로 전체 중 63%에 해당함.

- 전공 계열별로 살펴보면 일반 프로그램(84.9%), 어학연수(74.3%), 한국학(69.0%), 농림어업(61.3%) 전공자 순으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은 비중이 높았으며,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전공 계열에서 2020년 대비 증가하였음.
- 또한 본국으로 출국할 계획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모든 전공 계열에서 비중이 감소하였음.

○ 한국에 체류할 계획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하고자 하는 업종은 전문과학(19.6%), 교육·서비스(16.7%), 기타(13.6%) 순으로 취업 희망 비중이 높았음.

- 우수 인재 유치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전문과학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중이 높은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비중은 2020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하였음.

〈표 3〉 외국인 유학생 전공별 졸업 후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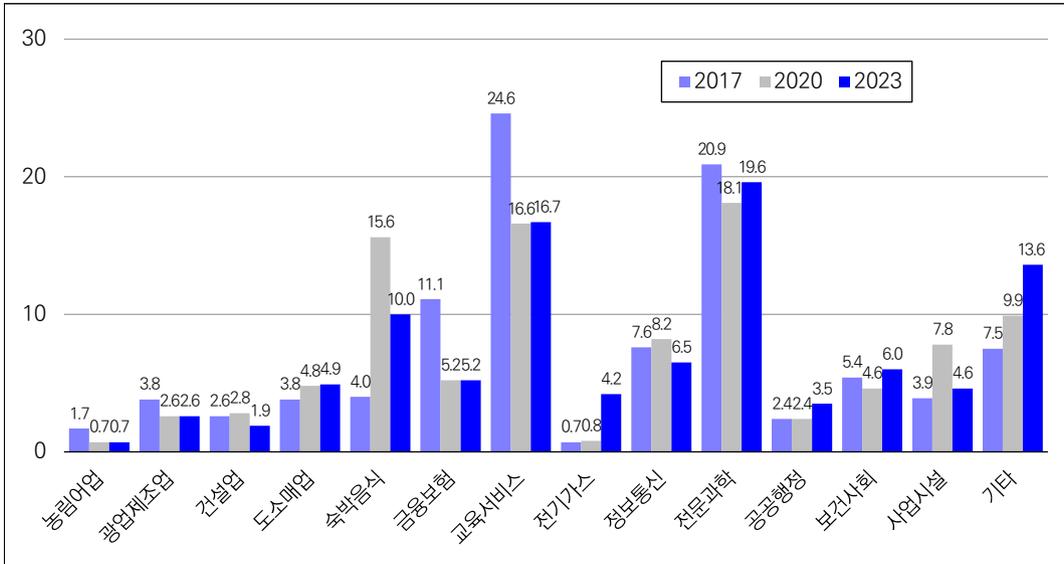
(단위: 명, %)

	한국에 계속 체류			본국으로 출국			제3국으로 출국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2017	2020	2023	
외국인 유학생 전체	40,614	74,952	118,369	47,377	55,167	57,061	10,610	6,876	12,426	
전공 계열 (비중)	한국학	42.7	65.3	69.0	56.6	32.9	26.5	0.8	1.8	4.5
	교육, 예술 및 인문학	39.3	44.2	47.7	51.0	51.1	44.3	9.7	4.7	8.0
	사회과학, 언론, 정보학, 경영, 행정 및 법 (한국학 이외 사회과학)	38.4	52.7	61.2	48.7	41.7	31.8	12.9	5.6	7.0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자연과학)	36.0	44.0	47.1	45.7	44.3	34.3	18.3	11.8	18.7
	정보통신기술, 공학, 제조 및 건설(공학)	33.0	50.0	65.0	52.7	40.0	25.3	14.3	10.0	9.7
	농림어업 및 수의학	53.9	62.3	61.3	38.3	37.7	35.6	7.8	-	3.2
	보건 및 복지(의학 및 약학)	14.6	43.2	59.4	41.2	52.2	29.2	44.2	4.7	11.4
	일반프로그램, 자격 및 서비스(기타)	-	60.0	84.9	-	36.0	12.3	-	3.9	2.8
	어학연수	59.7	60.6	74.3	36.9	37.0	23.1	3.3	2.4	2.6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유학생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학교 졸업 후 향후 계획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 취업하기 원하는 업종

(단위: %)



주 : 기타는 부동산, 운수창고, 수도하수, 예술스포츠 등 산업이 포함됨.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유학생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유에서 귀국을 결심하였음.
- 가족 및 친인척과 함께하고자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33.3%)가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일자리와 연관된 사유인 '본국에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아서(17.5%)', '본국에서 활용하고 싶어서(14.0%)'와 '한국에서 취업이 힘들어서(9.5%)' 순으로 비중도 높았음.

〈표 4〉 학교 졸업 후 향후 계획에서 “본국으로 출국”을 응답한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비중

(단위 : %, %p)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2017	2020	2023	증감
본국에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아서	18.2	20.8	17.5	-3.3
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5.5	10.4	6.1	-4.3
한국에서 취업이 힘들어서	7.0	8.1	9.5	1.4
한국에서 비자전환과 체류연장 절차가 까다로워서	3.5	2.7	3.8	1.1
본국의 생활 여건이 더 좋아서	7.2	9.5	7.9	-1.6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37.0	29.2	33.3	4.1
유학 생활 중 배운 지식을 본국에서 활용하고 싶어서	13.9	14.0	14.0	0.0
본국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4.1	2.8	4.6	1.8
기타	3.6	2.5	3.4	0.9

주 : 설문 응답은 순위형 다중응답으로 2순위까지 이루어져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1순위 : 응답 * 2, 2순위 : 응답 * 1).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유학생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 한국에서 계속 체류와 본국으로 출국 계획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 중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 비중

(단위 : %, %p)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		2017	2020	2023	증감
한국에 계속 체류 (비중)	기숙사 제공	8.2	5.6	6.2	0.6
	수업료 감면	26.2	37.8	30.8	-7.0
	유학생 동아리 지원	7.8	7.8	9.7	1.9
	출입국 업무 설명회 및 수속 대행	6.2	4.1	6.6	2.5
	아르바이트/취업 지원	26.7	24.5	23.8	-0.7
	한국어 어학 지원	20.5	15.4	19.3	3.9
	받고 싶은 지원 없음	3.9	4.1	3.1	-1.0
	기타	0.1	0.7	0.4	-0.3
	본국으로 출국(비중) (한국에서 취업이 힘들어서/비자전환이 까다로워서)	기숙사 제공	4.2	7.8	7.4
수업료 감면		22.9	40.0	34.8	-5.2
유학생 동아리 지원		-	5.2	7.8	2.6
출입국 업무 설명회 및 수속 대행		12.5	4.1	5.4	1.3
아르바이트/취업 지원		29.2	23.3	21.6	-1.7
한국어 어학 지원		20.8	16.7	17.2	0.5
받고 싶은 지원 없음		10.4	2.2	5.9	3.7
기타		-	0.7	-	-

주 : 설문 응답은 순위형 다중응답으로 2순위까지 이루어져 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1순위 : 응답 * 2, 2순위 : 응답 * 1).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유학생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한국에 계속 체류와 본국으로 출국을 응답한 외국인 유학생 모두 ‘수업료 감면’ 비중과 ‘아르바이트/취업 지원’ 비중이 높았음.
- 종합하면, 한국에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표 3 참조),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일자리와 생활 여건 문제로 귀국을 결심함을 알 수 있음.
 - 졸업 후 한국에 체류 후 취업을 계획하고 있는 유학생은 56.2%(2020년, 59.8%), 진학을 계획하는 유학생의 43.4%(2020년, 39.5%)에 비해 비중이 높았음.
 -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유치와 정주를 위해 생활 여건 개선 및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지원 정책 확대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황지영, 동향분석실 연구원)

[참고문헌]

법무부, 「출입국통계」 원자료, 각 연도.

오정은·고지영·김경미·김안나·안상욱·장지은·한유경(2013), 『우수 유학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장단기 전략연구』, 이민정책연구원.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유학생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Phillippe Aghion, Céline Antonin, Simon Bunel(2020), *The Power of Creative Destruction: Economic Upheaval and the Wealth of Nations*, Belknap Press.